



北京市高等教育精品教材立项项目

중국조선족문화사

● 오상순 주필

민족출판사

북경시고등교육정품교재 항목
중앙민족대학교 “211공정” 항목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한국재외동포재단 연구과제

중국조선족문학사

고문 김동훈

주필 오상순

집필 김동훈 최삼룡 오상순 장춘식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文学史: 朝鲜文 / 吴相顺主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7. 10

ISBN 978-7-105-08962-8

I. 中… II. 吴…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文学史 - 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65155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12月第1版 2007年12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27.625

字数: 650千字 定价: 52.00元

ISBN 978-7-105-08962-8/I·1872(朝199)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머 리 글

조선족은 역사상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조선인들이 중국땅에 정착하면서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된것이다. 조선족문학은 바로 중국에 이주한 조선민족에 의해 창조된 문학을 말한다. 조선족문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 다민족문학의 한 구성부분이며 민족적 또는 언어 문화권의 차원에서 보면 “백의동포문학”의 일부분이다.

조선족이 전격적으로 중국에 이주, 정착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한세기를 넘는 동안에 조선족문학은 청나라의 동화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해방후 중국사회의 복잡다단한 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겹게 발전하여왔다. 그만큼 130여년의 조선족문학은 조선족의 장엄하고 눈물겨운 역사적행정을 반영한 문학으로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재부이다. 따라서 조선족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적정립이 우리앞에 나선 과제이다.

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에서는 다년간 조성일, 권철 주필의 《중국조선족문학사》(1990년)를 교재로 써오다가 절판이 되어 고민하던중 2002년에 북경시 정품교재로 신청한것이 인가되어 편찬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후원받아 《중국조선족문학사》 집필을 원만히 마칠수 있었고 중앙민족대학교 “211공정”에 들어가 출판비를 후원받게 되었다.

본고는 조선족문학 자체발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크게 세 단계, 즉 제1편 이민시기의 문학(이주—1945년), 제2편 정치공명시기의 문학(1945년—1978년), 제3편 다원화시기의 문학(1979년—1999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1편은 다시 이주 전기의 문학(이주—1931년)과 이주 후기의 문학(1931년—1945년)으로, 제2편은 1945년—1957년, 1957년—1978년의 문학으로, 제3편은 1979년—1989년, 1990년—1999년의 문학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본고는 해방전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선(한국)지면에 발표되었지만 중국 생활 또는 이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함께 취급하되 중국에서 창작되고 중국에서 발표되고 중국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해방전 중국에서 문학활동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작가들에 한해서는 중국에서의 문학활동과 재중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지금까지 조성일, 권철 주필의 《중국조선족문학사》를 비롯하여 이미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나왔고 새로운 자료들도 많이 발굴되어 본 《중국조선족문학사》 집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본고는 조성일, 권철 주필의 《중국조선족문학사》를 참조하면서 이 저서에서 취급되지 않은 부분들, 이를테면 집필후에 발굴된 해방전 작품들과 1987년이후의 문학 그리고 1990년대 문학을 상당 편폭으로 다루었고 해방후 30여년의 문학도 긍정적인 측면뿐만아니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평가를 주어 조선족문학의 정체적인 파악에 도움을 주고저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방전 일부 문학사료들이 우리 손에 장악되지 못하고 또 개혁개방이후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필자의 수준제한으로 일부 중요한 작가나 작품이 취급되지 못했을수도 있고 문학사적으로 가치평가나 자리매김을 옳바로 못했을수도 있으며 따라서 미흡한 점은 물론 결함도 동반될수 있음에 대해 미리 사과드린다.

본 《중국조선족문학사》는 대학교용 교재인 동시에 조선족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 줄저가 조선족문학사를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앞으로의 조선족문학연구와 보다 완벽한 《조선족문학사》 편찬에 일조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선배님들과 문학동인들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평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본고는 오상순, 김동훈, 최삼룡, 장춘식 선생의 공동편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집필 분공은 아래와 같다.

김동훈—제1편의 제1장, 제2장, 제3장,

장춘식—제1편의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최삼룡—제2편의 제1장, 제2장, 제5장, 제3편의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오상순—머리글, 제2편의 제3장, 제4장, 제3편의 제1장, 제3장, 제6장, 제8장.

상술한 집필 분공에 따라 각자가 집필한 다음 오상순교수가 통일적으로 수정하고 심열하였다.

먼저 《중국조선족문학사》 집필 청탁에 선뜻 응해주시고 다망한 와중에 열심히 원고를 써주신 김동훈, 최삼룡, 장춘식 선생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이 기회에 평생을 조선족문학 관련 자료 발굴과 연구에 몸담아오면서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여 조선족문학연구에 큰 기여를 한 고 권철교수님을 비롯하여 좋은 논문과 평론글을 써서 《중국조선족문학사》 편찬에 많은 도움을 준 여러 평론가와 연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중국조선족문학사》 편찬에 물심량면으로 후원을 주신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재외동포재단, 중앙민족대학교 소수민족언어문학대학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이 책의 출판을 선뜻 맡아주시고 꼼꼼히 편집해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 여러 선생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시한다.

주필로부터

2007년 8월 10일

차 례

제1편 이민시기의 문학(이주—1945년)

제1장 이민시기(이주—1945년)의 구비문학	2
제1절 설화	2
제2절 민요	6
제3절 판소리	22
제4절 민간극	25
제2장 이주 전기(이주—1931년)의 문학	26
제1절 시대상황과 문학개관	26
제2절 시문학	31
제3절 소설문학	45
제4절 산문문학	50
제5절 극문학	52
제3장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	57
제1절 김택영의 한시와 산문	57
제2절 신정의 한시와 정론	63
제3절 신채호의 자유시와 산문	67
제4절 《꿈하늘》과 《룡과 룡의 대격전》	73
제4장 이주 후기(1932년—1945년)의 문학개관	77
제1절 시대상황과 문단활동	77

제2절 이민작가들의 정체성과 문학인식	83
제5장 이주 후기의 시문학	86
제1절 《북향》시기의 시작품	86
제2절 《만선일보》시기의 시작품	88
제3절 윤동주와 심련수의 시	111
제4절 시문학의 특징	123
제6장 이주 후기의 소설문학	125
제1절 이민소설의 전개양상	125
제2절 강경애의 소설세계	138
제3절 안수길의 소설세계	143
제4절 현경준의 소설세계	148
제5절 김창걸의 소설세계	153
제7장 이주 후기의 극문학	159
제1절 항일부대에서의 연극창작과 그 의미	159
제2절 문단희곡의 성향과 그 수준	164
제3절 일제강점기 희곡의 형식적특징	170
제8장 이주 후기의 산문문학	173
제1절 수필의 형태와 가치	173
제2절 실화문학 및 기타	181

제2편 정치공명시기의 문학(1945년—1978년)

제1장 1945년—1978년의 문학개관	188
제2장 1945년—1978년의 시문학	194
제1절 1945년—1957년의 시문학	194
제2절 1957년—1978년의 시문학	198
제3절 리옥의 시	201
제4절 임효원과 김철의 시	204

제3장	1945년—1978년의 소설문학	209
제1절	1945년—1957년의 소설문학	209
제2절	1957년—1978년의 소설문학	214
제3절	리근전의 장편소설 《범바위》	221
제4장	김학철의 소설문학	224
제1절	생애와 문학활동	224
제2절	중단편소설	226
제3절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	231
제4절	장편소설 《20세기의 신화》	234
제5장	1945년—1978년의 극문학	237
제1절	극문학개관	237
제2절	황봉룡의 극문학과 《장백의 아들》	246

제3편 다원화시기의 문학(1979년—1999년)

제1장	1979년—1989년의 문학개관	252
제2장	1979년—1989년의 시문학	256
제1절	시문학개관	256
제2절	김철의 시	262
제3절	김성휘의 시	265
제4절	조룡남의 시	271
제5절	리상각의 시	274
제3장	1979년—1989년의 소설문학	277
제1절	소설문학개관	277
제2절	김용식의 중편소설 《규중비사》	303
제3절	리근전의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	306
제4절	김학철의 장편소설 《격정시대》	308
제5절	림원춘의 소설세계	312

제6절	리원길의 소설세계	316
제7절	류원무의 소설세계	321
제4장	1979년—1989년의 극문학	324
제1절	극문학개관	324
제2절	최정연의 극문학	330
제5장	1979년—1989년의 산문문학	333
제1절	수필	333
제2절	실화문학	335
제3절	잡문	336
제6장	1990년—1999년의 문학개관	338
제7장	1990년—1999년의 시문학	341
제1절	시문학개관	341
제2절	대표적인 시인과 시	344
제8장	1990년—1999년의 소설문학	355
제1절	소설문학개관	355
제2절	장편소설	382
제3절	녀성소설	395
제9장	1990년—1999년의 극문학	402
제1절	극문학개관	402
제2절	리광수의 극문학	406
제10장	1990년—1999년의 산문문학	412
제1절	수필	413
제2절	잡문과 기타 산문	418
제3절	김학철의 산문	422

제1편 이민시기의 문학

(이주—1945년)

제1장 이민시기(이주—1945년)의 구비문학

조선족의 구비문학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의 토대우에서 산생, 발전하여왔다. 과정(跨境) 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은 19세기중엽이후 조선반도 이주민들의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대량적인 천입과 더불어 점차 재래의 구비문학의 제재, 풍격과 일부 구별되는 자기의 독자적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민중의 리상과 념원을 담은 수많은 전설, 민담과 민요들을 창조하였다. 그가운데는 조선반도에서 류전되던 재래의 설화와 민요들을 원형 그대로 옮긴것도 있고 그 원형에 기초하여 산생된 여러가지 변종과 변이들도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자연, 력사, 현실생활과 밀착되어 창작된 새로운 향토전설, 민요, 민담들도 있고 한(漢)족, 만족, 몽골족 등 기타 민족의 구전설화가 조선족민중들사이에 전파되면서 민족설화로 변모된것도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엽에 재중조선인들은 벌써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에밀레중》, 《바보온달》, 《나무군과 노루》, 《토끼와 거북》 등 조선반도에서 널리 류전되던 적지 않은 전통적인 민요와 설화들을 그대로 중국땅에 옮겨왔으며 또 이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반일애국사상을 노래한 새 민요(계몽가요를 말함.)와 새 민담을 널리 창작, 보급하였다.

이 시기 구비문학의 발전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아래에 설화, 민요, 판소리, 민간극 순으로 일부 력사사실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제1절 설화

조선족들은 천입초기에 벌써 《용천골》, 《소가죽 한장만큼》, 《물》, 《무빈골》, 《식발갱이》, 《은혜》 등 새로운 설화들을 창조하였다.

전설 《용천골》은 룡정에서 50여리 떨어진 한 무명골안에서 초동을 비롯한 참된 농부들이

선녀의 도움으로 불로장생의 생명수를 찾고 논밭을 일구었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개척 시기 이주민들의 행복한 새생활에 대한 지향과 향토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민담 《소가죽 한장만큼》¹⁾은 룡정에 일본령사관이 설 때 인민들의 분노를 담은 이야기이다. 일본인들이 령사관청사를 지을 때 중국 당지의 도대인(陶大人)에게 소가죽 한장만큼 되는 땅만 빌리면 된다고 하고서는 소가죽을 오리오리 찢어 길게 이어놓은 다음 그 가죽오리를 둘러 수십 경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으리으리한 큰 령사관청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도대인의 마부가 선뜻 나서서 “소가죽 한장만큼 빌렸으면 그 가죽오리를 타고앉아 있을게지 왜 남의 나라 령토를 함부로 차지하는거냐?”고 꾸짖었다는 것이다. 이 민담은 풍자적수법을 빌어 일제의 교활성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인민들의 총명과 지혜를 표현하였다.

민담 《삭발갱이》는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실시한 민족차별정책을 폭로, 풍자하였다.²⁾ 이러한 설화들은 그 당시에 류전은 되었지만 수집, 출판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이 문자로 정착된것은 해방후의 일이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초에 문자로 기록된 조선족설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조사한데 의하면 1898년, 1908년, 1914년 세차례에 걸쳐 로씨야어, 중국어, 조선어로 된 3권의 설화집이 인쇄 혹은 프린트본으로 출판되었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것을 년대순에 따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가린 미하일롭스끼가 수집, 출판한 《조선민담집》³⁾

가린 미하일롭스끼는 19세기 로씨야의 문단에서 막심 고리끼와 함께 확고한 위상에 있었던 민주주의계렬의 작가로서 일찍 세계일주 여행을 시도하여 로씨야 탐험대의 한 그루빠를 책임지고 1898년 9월 14일 두만강하류 로씨야—조선 국경초소를 통과한후 예정된 백두산 탐험로정을 거쳐 10월 18일 압록강하류 의주, 안동을 떠날 때까지 30여일동안 조선과 만주의 국경지대를 여행하였는데 그 와중에 짬짬이 조선민담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되어 19세기말 근대조선의 두번째 민담집이 제정로씨야의 작가에 의하여 채집, 출판되었던것이다.⁴⁾ 가린 미하일롭스끼가 수집한 백두산지역의 민담들은 《조선민담집》이라는 제목으로 189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후 여러 번 판을 거듭하여 로씨야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이 민담집에는 그 당시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양안 지역에 류전되고있던 조선민담 64편이 자체의 구두어적성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실하게

1) 연변민간문예연구조 편, 《조선족민간문예자료집》 제2집에 수록, 1963년.

2) 이 시기에 창작된 전설들은 대부분 《조선족전설집》(민족출판사 1991년)에 수록되어있다.

3) 할빈, 심양 도서관에 소장. 1989년 창작과 비평사(서울)에서 《백두산민담》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출판.

4) 근대 조선의 첫 민담집은 미국선교사 H.N.Alleno가 수집, 출판한 영어판 《조선민담집》(뉴욕, 1889년)이다.

기록되어있다. 이 《조선민담집》은 로씨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조선 구비문학자료집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1898년에 미국 뉴욕에서 《조선민담》 한권이 나왔으나 수록된 편수가 적고 대부분이 작가자신이 직접 수집한것이 아니였다. 가린 미하일롭스키는 작가로서 직접 조선사람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충실하게 기록하였으며 자기 말을 보태거나 윤색하지 않고 조선민담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애썼다. 이 점에 대해 그는 자기가 펴낸 《조선민담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20~30명의 조선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쪼크리고 앉았다. 훌륭한 이야기꾼이 옛말을 들려주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대가 긴 조그마한 대통을 빨면서 주의깊게 그의 말을 들었다. 교원의 직업을 가지고 조선말과 로씨야말을 잘 아는 조선인 통역이 그의 이야기를 통역해주었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자꾸자꾸 기록하였으며 자기 말은 조금도 보태지 않고 이야기의 소박성을 보존하려고 애썼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담보하며 미래의 연구자들이 내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가린 미하일롭스키가 민중의 집단적인 창조물인 민담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고 민중 자신의 언어로 구비문학의 모양새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민담집은 근대 최초의 조선민담집이라는 점과 언어형식에서 력대문헌설화들과는 달리 구비문학의 모양새와 구두성을 그대로 전달하고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있다고 할수 있다.

2. 류건봉이 수집, 정리한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志略)》

류건봉은 20세기초에 중국 길림성 안도지현(安圖知縣)이라는 벼슬을 지냈던, 문학수양이 깊은 지방관리로서 1908년에 한달 남짓한 동안 백두산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하고 답사과정에 140여편에 달하는 백두산설화들을 채집하여 《장백산강강지략》이라는 지방지(地方誌)에 수록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나 조선을 막론해서 백두산전설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채록한것이 없었다. 《장백산강강지략》은 이 면에서 시범적역할을 논 중요한 구전설화집이다. 이 140여편의 백두산전설중에는 명확하게 “한인(韓人)의 구술”이라고 밝힌것이 20여편가량 되는데 그것만을 추려가지고도 이 자료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백두산전설집이며 20세기 제일 처음으로 채록된 조선족관련 전설집이라는것이 알려진다.

류건봉이 채록한 백두산전설집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특색을 갖고있다.

민족의 구성면에서 백두산전설은 주로 고대의 녀진과 그들의 후예에 의해 창조된 민족(滿族)의 전설, 근대시기 조선의 이주민들에 의해 창조된 조선족전설, 청초말기이후 산둥이민들에 의해 창조된 한족(漢族)전설 등 세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상고시기의 전설들은 민족들의 빈번한

이동과 교체, 동화 과정에서 대부분 서로 융합되어 여러 민족의 공동한 설화적재부로 되어버렸다.

등장인물의 계층면에서 백두산전설은 토착민, 사냥꾼, 초부, 약초 캐는 사람, 채금로동자, 길잡이, 지방관리 등形形色색의 인간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들은 태반이 전설의 주인공이거나 목격자들로서 자기의 신근한 로동, 모험적인 경력, 신기한 자연현상에 대한 발견과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의하여 이 고장의 인물, 산수, 생물, 유물들을 전설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문화적양상면에서 이 지방지에 수록된 전설들은 고조선의 백색문화, 만-통그스족의 샤만문화의 기저에 깔고 황하류역의 화하(華夏)문화의 풍부한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형성된 복합적성격을 지니고있다. 전설에 나오는 백관음, 천녀, 나무군, 꽃시습, 흰 짐승, 망부석, 젓무덤, 각시바위 등 이야기들은 조선민족의 백색문화의 영향하에서 창조된것이고 천녀욕궁처, 왕늪, 방학대, 제사대 등 전설은 녀진족의 샤만문화에서 연생되어 나온것이며 견우교, 직녀봉, 녀와 중손녀의 돌바늘, 반고의 철산호, 우임금의 치수 등 장면은 황하류역의 고대신화에서 변이되어나온것이다.

140여편의 방대한 량의 전설을 담고있는 이 전설집은 “한인(韓人)”의 전설을 20여편이나 수록하고있다는 점에서와 백두산설화를 처음으로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리동휘, 계봉우가 편찬한 《초등소학수신서》

프린트본으로 전해지고있는 이 책은 뒤면에 “檀君紀元四千二百四十七年三月十六日承書”라고 적여있는것으로 보아 기원 1914년 3월 16일에 발행된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이 책은 1986년 봄 흑룡강성 밀산현의 한 농민가정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의 조상때부터 보관되어 내려온것이라고 한다. 본시 이 책은 1910년대 “북간도 연결현 국자가 지타소 농림동(北間島 延吉縣 局子街 芝他所 農林洞)” 부근에 있던 조선인 신형소학교의 수신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이 수신서의 편찬자에 대한 고증에 의하면 위만주국시기 일본인이 쓴 《소수민족교육사》와 조선인 김모가 쓴 《소수민족교육사정》(자료집)⁵⁾에 1910년대 간도에서 꾸린 조선인 신형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리동휘의 지도하에 계봉우 등 계몽교육가들이 집필하였다고 쓰고있다. 계봉우는 1910년대 간도지역에서 민족교육을 추진한 증견인물이였고 리동휘는 후에 립시정부의 요원으로 출임하였다가 사퇴한 사람이다.

《초등소학수신서》는 전체 60과로 되었는데 매 과문마다 그 내용을 알아볼수 있는 그림이 동반되어있다. 수신서에 일관된 중심사상은 애국애족, 민족자강, 반일반봉건 정신이다. 물론 “수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수신제가평천하(修身齊家平天下)”의 유교적교리가 명시되어있고 과문에도 “인의례지신(仁義禮智信)”의 유교적인간륜리 도덕표준이 창도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에 줄

5) 이 두 책은 장춘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기차게 흐르는것은 근대계몽사상가들이 선양하던 민족, 민주, 민권 등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이 책이 구비문학자료집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과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알기 쉬운 동화나 우화 형식으로 엮어졌다는것이다. 60여편의 과문중에 우화형식으로 씌여진것이 20여편인데 그 편폭이 모두 매우 짧다. 가장 짧은것은 200자, 길어서 500자를 넘지 아니한다. 그가운데 이소프우화에서 발췌한것은 한편뿐이고 대부분은 조선반도의 전래설화에서 인용한것이다. 이러한 우화들은 근대시기 조선족들사이에 가장 널리 류전되였던 민간우화들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밖에 이 수신서는 1910년대 간도 지역에서 사용되던 조선말 문법, 철자, 띄어쓰기 등 언어적실태를 알아보게 하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갖고있다.

1920년대에 진입하여 김좌진,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의병, 독립군의 항일투쟁에 관한 전설들이 장백산일대에 널리 전파되였다. 레전대 《김좌진의 조이발 기는 재주》, 《염계달의 사격술》, 《불타버린 사향리》, 《청산리전투》, 《불행중 다행》 등 항일명장들에 대한 전설들이 곧 이 시기에 창작된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설화에 대해 체계적인 채집,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간도지역에 《북향》, 《카톨릭소년》, 《만선일보》 등 문학지와 신문이 발간되면서 창작동화와 민담들이 가끔 게재되곤 하였다. 당시 설화문학에 관심이 있었던이들로는 송창일, 리구조, 로향근을 들수 있다. 이밖에 일제 총독부의 허가를 거쳐 발행된 소학교 《조선어 독본》에도 《떡보의 이야기》 등 구전설화들이 몇편 실려있었다. 동화 《놀고 먹던 꿀꿀이》는 항일무장투쟁 초기 길림소년회의 명의로 간행되였다.

이 시기 설화창작에서 특기할만한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현실에서 취제한 새 전설과 새 민담들이다. 항일설화 《박지형》, 《연통라자》, 《신출귀몰》, 《올가미전투》, 《오랍누이》, 《별천지》, 《정찰반장 김봉수》 등 작품들은 항일투쟁의 거창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기적적이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항일투사들의 영웅적형상을 생동하고 소박하게 부각하였다.⁶⁾

제2절 민요

조선족 민요사는 그들의 이주사와 함께 시작되였다. 조상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민요는 우리 민족 마음의 거울이며 생활의 날개였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흥겨울 때나 민요는

6) 이 시기에 창작된 설화들은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항일전설설화집》(1992년)에 다수 수록되여있다.

우리의 겨레와 더불어 생활하며 살아왔다. 민요에 의지하여 리별의 회포를 풀었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얻었으며 미래에 대한 밝은 꿈을 키워갔다.

1. 신민요의 산생과 발전

“한일합방”전후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선이주민속에서 현대적지향에 의거한 새로운 경향의 민요—신민요가 창작, 류전되었다.

1910년대 간도 사립학교의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월강곡》과 《기다림》은 조선인에 대한 청나라 조정의 봉금(封禁)정책이 실행되던 시기에 우리 겨레들이 겪어온 비참한 생활상을 노래한 이주 초기 최초의 시편으로 알려지고있다.

월편에 나뭇기는 갈대잎 가지는
애타는 내가슴을 불러야 보건만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래요

기러기 갈때마다 일러야 보내며
꿈길에 그대와는 늘 같이 다녀도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래요

—《월강곡》

새봄이 다가도록 기별조차 없는 님
가을밤 안신까지 또 어찌 참으래요
두만강 눈얼음은 다 풀리어 갔다는데

새봄이 아니오라 열세봄 넘어와도
못참을 내랴만은 가신님 닛 잊을가
강남의 연자들은 제집찾아 다왔는데

—《기다림》

이 두수의 민요는 19세기 리조봉건통치의 혹정과 계속되는 기근에 못이겨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간 님을 그리며 혹여나 님의 신변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애간장을 태우는 농촌녀인의 순정을 토로하였다.

20세기초엽, 이주민들에 의해 창작된 신민요들에는 자기의 불우한 신세에 대한 개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망향가가 절대다수였다. 이러한 민요들로는 《북간도》, 《북간도 잡시다》, 《이사길》, 《망명의 노래》, 《신 아리랑》 등 여러수를 들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북간도 갑시다
거기는 살기 좋고/농사도 잘된대요

차라리 왜놈없는/그 땅에 가서
마음놓고 철을 맞춰/농사합시다.

이는 민요 《북간도 갑시다》의 전문이다.

문전옥답 다 빼앗기고/거지생활 웬 말이나
밭있고 집있는 벗님네야/어디로 가야만 좋을가나
아버님 어머니 어서 오소/북간도 별판이 좋답데다

다른 한수의 《북간도》의 전문이다. 이 두수의 민요는 이주 초기 새생활에 대한 동경과 열망으로 부풀어오른 이주민들의 심정을 담고있다.

그러나 북간도가 그들에게 준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이러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민요들로 《늬라서 간도가 좋다더냐》, 《십진가》, 《수인의 노래》, 《새 아리랑》, 《한숨》, 《베 짜는 설음》, 《팔월보름달》, 《이 내 팔자》, 《헛농사》, 《우리 살림》, 《봄 아닌 봄》 등이 있다.

늬가 간도가 좋다더냐
가자 어서 가자 하늘땅 잇대인 저곳으로
앞에는 사막이요 뒤에는 민둥산일세
이 찌빵 하나만 있어도 갈수 있을것을
대판절 가야느냐 돌아서야 하느냐
일이십리를 더 걸을수는 있는데

—《늬라서 간도가 좋다더냐》

십리도 못지나 발병이 날래지
두만강 배에 실려 미치면은 어찌나
가슴에 파뭇쳐 얼굴을 부비며
몸부림 치구서 떠나간 사람아
한달에 두번씩 편지만 말고
두달에 한번씩 차저와 주렴아

—《북간도의 유민이 부른 노래》⁷⁾

7) 립화의 《春來不似春》(《조광》, 1937년 제4호)에서 인용.